

## 대학생들의 자존감 구성요인에 있어서 문화적, 성차의 효과\*

홍 기 원†

호서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인 자존감의 문화적, 성별 차이를 다루었다. 연구 1에서는 다차원자존감척도(MSEI; E. J. O'Brien & S. Epstein, 1988)를 사용하여 한국인과 미국인 및 한국인 남녀 간의 자존감 구성요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요인분석 결과, 한국인의 경우 능력, 인정, 자신감, 미래상, 외모(얼굴), 의지, 도덕성, 신체(몸) 및 호감의 총 9개 요인이 확인되었다. 미국인의 경우 외모, 신체 기능, 사적 권력, 도덕적 자기인정, 정체성 통합, 유능성, 방어적 자기향상, 일반 자존감, 자기 통제, 애정(loveability), 호감(likability)의 총 11개 요인이 확인되었다. 한미간의 공통요인으로는 외모, 도덕성, 능력(유능성), 의지(자기통제) 및 호감 요인이었다. 한국인 자료에서는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미국인 자료에서는 사적 권력과 방어적 자기향상 등 나머지 요인들에서는 차이가 났다. 이 차이는 한국인과 미국인이 집합주의와 개인주의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인 성인자존감 척도(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6)를 대학생들에게 실시한 결과는 성인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이 척도의 타당성을 입증한 결과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국인 남녀 간의 요인구성에서도 차이가 발견 되었다. 연구 2에서는 남녀 간의 성차를 더 보기 위하여 상호의존성 측면과 독립성 측면에서 남녀 간의 자존감 구성요인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상호의존성 측면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없었지만, 독립성 차원에서는 남녀 간에 차이가 두드러졌다. 즉,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하여 훨씬 독립적이었다. 상호의존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남녀 모두 소속욕구에 있어서 동일하기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선행연구들을 지지한 것이지만, 상호의존성의 두 하위 차원인 관계적 상호의존과 집합적 상호의존에서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은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존감의 문화적-양성적 차이, 집단주의, 개인주의, 다차원 자존감 척도, 상호의존성 차원, 독립성 차원, 관계적 상호의존, 집합적 상호의존.

\* 이 논문은 2007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080020).

† 교신저자 : 홍기원,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330-180) 충남 천안시 안서동

E-mail: kiwhong@office.hoseo.edu

한국인 자존감의 구성요인을 다룬 연구들이 나왔고, 자존감 척도도 개발되었으며, 일부 남녀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나왔으나, 미국 등 다른 문화권과의 비교를 통한 자존감의 구성요소에서의 차이를 보인 연구는 부족하다. 성인 집단에서 나온 자존감 척도를 통하여, 대학생들은 일반적인 성인 집단들과 다른 자존감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도 관심거리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학생 집단은 미국의 대학생 집단이 갖고 있는 자존감의 구성요소들과 어떤 점이 같고 다른 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일본, 중국과 미국의 참가자들을 비교하여 자존감의 구성요소가 다를 개연성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뿐 아니라 남녀가 상이한 자아개념을 갖고 있어 서로 다른 자존감의 구성요소를 가질 가능성도 보고되었다(예. Heine & Lehman, 1997; Houston & Andreopoulou, 2003; Huajian, Jonathan, Ciping, & Mark, 2007; Turner & Reynolds, 2000).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한국형 자존감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다른 문화권에 사는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척도를 통하여 문화권에 따라 다른 패턴의 자존감 구성요소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양성간에 상이한 자존감의 원천에 대한 탐색도 시도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남성은 독립적 자아를 여성은 관계적 자아를 중시한다고 하였으나, 최근의 자료들은 남녀 모두 관계적 자아에서 전체적으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관계적 상호의존과 집합적 상호의존의 두 하위 차원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Gabriel & Gardner, 1999; Seeley, Gardner, Pennington, & Garbriel, 2003). 이를 위하여 먼저 개인 중심적인 자기개념이 서구 사

회에는 적합하나 동양사회에서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문화적 차이를 주장한 연구를 개관하고, 이어서 남녀 간의 자존심의 구성요소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 자아개념의 두 유형인 관계적 상호의존과 집합적 상호의존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 볼 것이다.

#### 문화권에 따른 자존감 차이

내집단 편파 현상은 흔히 최소집단에서부터 보다 현실적인 맥락 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들 내집단 편파는 사회정체성 과정으로 설명되어 왔다. 전형적인 연구들에서는 집단 내 사회정체성의 위협으로 긍정적인 특이성을 가지려는 동기가 있다고 가정하였고, 전형적인 결과들은 사회정체성의 위협이 있으면 없을 때보다 다양한 차원들에서 더 내집단 편파를 보였다. 그러나, 개인주의 문화권과 달리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그러한 집단 중심적 편파들이 보이지 않았다(Breakwell, 1978; Kitayama, Markus, Matsumoto, & Norasakkunkit, 1997). 캐나다와 일본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집단에서 개인 중심적 편파와 집단 중심적 편파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본 연구 결과, 일본 학생들은 캐나다 학생들보다 개인 중심적 편파와 집단 중심적 편파가 더 적었다. 오히려 일본 학생들에서는 집단 편파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실제로 낮은 지위의 학생들은 높은 지위의 학생들을 자신들을 평가하는 것보다 높은 지위의 학생들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나아가 일본 학생들에서는 개인 중심적 편파의 차이는 집단 중심적 편파의 차이와 비슷하게 나왔다. 이 결과는 자신의 자아를 높이려는 동기와 자신이 속한 집단을 높이려는 동기는 비슷하다는 것을 시

사하는 것이다(Heine & Lehman, 1997).

미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내집단 편파에서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내집단 편파를 더 강조하도록 하는 공개적인 경쟁이 있었고, 감정이 실린 맥락 안에서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자들은 두 일본 팀과 두 미국 팀 간의 축구 시합을 하기 전후에 학생들이 가진 내집단 편파의 양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미국 팀들에서는 내집단 편파를 보였으나, 일본 팀들에서는 그러한 내집단 편파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자기 고양의 동기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내집단 편파의 양이 다른 것은 자아에 대한 개념이 다른 탓으로 보았다(Kitayama et al., 2003).

#### 문화권의 구분

Triandis(1989)는 미국과 같은 개인주의적 문화와 중국과 아시아와 같은 집단주의적 문화를 구분하였다. 개인주의 문화권에서의 자존감은 개인적 목표의 달성에 의하여 자존감을 갖지만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가족이나 사회와 같은 집단적 목표의 성취를 통하여 자존감이 얻어진다고 하였다. Markus와 Kitayama(1991)도 서구와 동양의 자아개념을 “독립적 자아”와 “상호의존적 자아”로 구분하였다. 독립적 자아에서는 개인의 특이성이 강조되고 남들로부터의 분리가 강조된다. 상호의존적 자아에서는 개인들의 집단과의 연계가 강조되고, 그가 속한 집단에서의 적응을 강조한다. 두 문화권에서 자기 개념 형성과정은 동일할 지라도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 일본 중국 등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자기 가족, 작업 집단, 또는 동료 집단으로부터의 평가가 자존감과 자부심, 수치와 같은 수반적인 감정의 주요

원천이다. 반면에 보다 개인적인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적 성취에 근거한 자기 귀인이 보다 중요한 자존감 형성 과정일 수 있다(Markus & Kitayama, 1991).

독립적인 자아와 상호의존적인 자아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자아개념은 인지, 감정, 그리고 동기에 영향을 준다. 독립적 모형에서는 안정되고, 독특하며, 내적으로 형성된 자율적이고, 확고한 실체로 자아를 본다. 자아 이미지는 안정된 특성이므로 사람들이 자아에 대하여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더구나 자아를 표현하는 것은 각 개인의 책임이다. 그리하여 독립적인 자아 모형에서는 자아가 “자아 실현”,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표현하는 과정의 근원이다. 따라서 서구 문명에서는 문화적으로 정의된 독립성과 자율성의 이상으로 자신들을 긍정적으로 보도록 장려하는 자아 고양에 관찰된다(Markus & Kitayama, 1991).

반면에 상호의존적인 자아에서는 관계적이고, 맥락적이며, 사회적인 상황에 의하여 자아가 이해된다. 이 모형에서는 안정된 특성이 아닌 특정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현실적인 관계로 자아가 형성된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들어맞고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자아는 사회적 맥락과 독립적으로 평가되며 사회적 맥락은 주요 관심사도 아니다. 그리하여 상호의존 문화권에서는 자아 고양보다 자기 비판을 문화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Heine & Lehman, 1997; Kitayama, Marcus, Matsumoto, & Norasakkunkit, 1997).

이러한 동서양 문화권에 따른 구분은 자기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각 문화권 안에서도 하위 문화권에 따라 자기 과

정에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서구의 여성들은 상호의존적인 자기 개념을 갖기 쉽고, 남성들은 독립적인 자기 개념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 안에서도 인종과 민족에 따라 보다 개인주의적인 자기와 보다 집단주의적인 자기의 차이를 보인다. 사회적 계층이나 학교와 지역사회 안의 인종 구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인종과 민족에 따른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 아프리카 계 미국 대학생들은 백인이 많은 고교를 다닌 경우보다 흑인이 많은 고교를 다닌 경우에 더 높은 자존감을 보였다(Gecas & Burke, 1995; Markus & Oyserman, 1988). 이는 자존감의 구성요소가 문화권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 설명이론의 보편성

자존감을 설명하는 사회정체성 이론은 자기-향상 욕구, 또는 긍정적인 특이성 욕구를 포함하기 때문에 자아의 본질에 대하여 중요한 가정을 담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욕구는 하나의 동기로 본다. 이렇게 보면 집단 간 편파적인 비교 경향성은 문화권의 구분 없이 보편적 현상이어야 한다(Heine & Lehman, 1997).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자기-고양의 욕구는 문화권에 따라서 다르다. 범문화적인 연구 결과들에서는 자기-고양의 욕구가 대부분의 일본인들의 동기들 속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인들의 문화권에서 장려하는 상호의존을 이루는 데는 자기-고양이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반대로 일본 문화권에서는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장려된다. 이러한 습관적인 자기-비판적 경향성은 그가 속한 집단으로까지 연장되어 내 집단 편파를 덜 보였다는 것이다(Houston &

Andreopoulou, 2003).

사회적 정체성의 동기적 핵심이 문화권에 따라 다른 지를 보려면 상이한 문화권에서 사회정체성 이론이 말하는 집단 간 편파가 나오는 지를 규명해야 한다. 사회정체성 이론에서 내집단 정체성과 내집단 편파 간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집단에선 실제로 자신들을 다른 집단들보다 더 열등하게 본다. 중요한 것은 사회정체성 이론에서는 내집단 편파는 긍정적 특이성을 갖기 위한 가능한 전략의 하나일 뿐일 수 있다. 사회정체성 이론 안에서의 정적인 특이성을 가지려는 동기는 독립적인 자아 모형을 촉진하는 문화권에만 국한될 수 있다. 정적인 특이성을 가지려는 동기는 서구인의 자아-개념에 들어있는 문화적 가치와 신념들을 반영한 것으로 더 잘 이해되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Turner & Reynolds, 2000).

서구인들보다 동아시아인들에서 자존감의 정도가 일관성 있게 낮게 나왔지만 그 이유는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못하다. 중국인들도 미국인들에 비하여 자기 평가의 인지적 척도 상에서 자신들을 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정적인 평가 척도 상에서는 그러한 문화적 차이는 나오지 않았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자존감 평가에서도 인지적 자기 평가를 통계적으로 통제된 후에는 문화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Huajian, Jonathan, Ciping, & Mark, 2007). 위에서 보듯 미국 등 서구 문화와 일본,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자존감을 비교한 연구는 일부 보고 되었고, 이에 대한 한 설명이론인 사회정체성 이론이 일본 등 일부 상호의존적 문화권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가설이 제기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이를 직접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양성 간의 자존감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양성 간에 자아개념에서 차이를 보이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 된 바 있다. 사회성의 여러 측면에서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대학생들에게 친구, 클럽회원, 개인 등 사회적 측면과 학업에서의 성공, 창의적 문제 해결, 인생에서의 행복 등 비사회적 측면에서의 비중을 7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친한 친구, 가족, 애인 등에 관련해서는 여성들이 더 중요하게 평가하였고, 남녀 학생회,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의 소속감, 그리고 사교 클럽에 대하여도 여성들이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였다. 정 반대 쪽의 사회적 측면인 개인적이고, 혼자 있기, 그리고 남들로부터 독립적이기 등에서는 남성들이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왔다. 사회적 측면에서와 달리 공부 잘 하기,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그리고 행복한 생활하기 등 다른 측면에서는 양성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Gabriel & Gardner, 1999).

사회성에서의 양성 간의 차이는 비단 대학생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었다. 25개국에서 실시된 양성 간의 고정관념 연구에서도 24개국에서 남성적 특질은 “독립적”인 것으로 여성적 특질은 “정이 많은(affectionate)”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남녀는 어떠하다는 생각은 사회적 영역에 따라서 다르며,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유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Williams & Best, 1990).

양성에 관련 동기를 다른 연구에서 남성은 도구적이고, 주장적이며, 자신을 믿는 특징을 포함한 작인(agency) 지향적이고, 여성은 온화하고, 표현적이며, 타인을 배려하는 특징의 친

교(communion) 지향적으로 나왔다. 나아가 이들 동기는 여성은 온화하고 표현적이며 남성은 보다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성 유형화 규범을 갖고, 자기 평가의 기준이 되도록 남녀의 자아개념이 내면화되어 왔다. 이런 규범 때문에 남성은 자아에 대한 보다 독립적인 시각을 유지하고(개인적인 능력, 특성, 기호에 근거한 자아), 여성은 보다 상호의존적인 자아관을 갖도록(친밀한 관계와 집단과의 유대에 근거한 자아) 자기개념에서의 양성의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Cross & Madson, 1997; Wood, Christensen, Hebel, & Rothgerber, 1997).

**관계적-집합적 상호의존**

그러나, 자아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성차를 직접 검증한 연구들은 의외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남성은 독립적, 여성은 더 사교적이라는 견해를 지지하는 대신에 양성 모두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의 기반으로 사회성과 관련된 자아가 중요함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상호의존적 정체성에서의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음도 밝혀졌다. 즉, 남성은 집합적 유대감을, 여성은 관계적 애착을 강조하기 쉽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호의존성에서의 양성 간의 성차는 “다르지만 동등하다(separate but equal)”. 즉, 양성은 전반적인 상호의존성의 정도에 있어서나 사회적 인지나 행동에 주는 상호의존적 개념에는 차이가 없지만 상호의존성의 여러 측면들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Seeley, Gardener, Pennington, & Garbriel, 2003).

그러나, Cross와 Madson(1997)이 말하듯 일반적으로는 여성들이 비교적 남성들보다 더 상호의존적인 자아개념과 사회적 행동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남성들이 비교적 독립적인 자아

개념을 가져야만 할 필요는 없다. 심리학 연구만이 아니고 의학적 연구들에서도 점점 더 안녕감에 사회적 유대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사회적 고립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결과는 성차와는 무관하였다. 실제로, 남들로부터의 인정과 남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메워지는 욕구인 “소속욕구”는 아주 보편적이어서 배고픔과 목마름이 신체적 구성에 필수적이듯 소속욕구는 심리적 구성에 본질적이다. 따라서 소속욕구로 상호의존적 자아가 영향을 받는다면 단지 남성이라고 해서 상호의존적인 자기관을 유지하고 조절해야 할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Misty, Rosansky, McGuire, McDermott, & Jarvik, 2001).

기본적 인간의 욕구로서 소속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이 동기가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소속욕구는 결혼을 통한 만족으로부터 교회 출석, 지역사회 참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 만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체 가설에 의하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관계에 훨씬 덜 중시하는 경험적 증거들과 보편적인 소속욕구의 존재 사이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친밀한 양자관계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상호의존적인 특성들은 존중할 수 있다(Baumeister & Sommer, 1997).

사회적 연결이 필요하다면 남성이나 여성 모두 전반적인 자신과 사회적 연계의 중요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 아동기의 사회화로 남녀는 상이한 측면의 상호의존을 중시하도록 권장된다. 특히, 상호작용의 관계적 형태와 집합적 형태에서의 구분이다 관계적 상호의존은 자아를 친밀한 관계의 역할로 정의된 측면을 반영하여 Cross와 Madson(1997)이 말하는 상호의존성과 비슷하다. 반면에 집

합적 상호의존에서는 중요한 집단에 소속된 바에 따라 정의된 자아의 측면을 나타내어 사회적 정체성의 개념과 가장 유사하다. 그리하여,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더 관계적 자아감을 갖고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더 집합적인 자아감을 갖고 있으리라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전반적인 상호의존도에서는 차이가 없고 종류가 다른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에서만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관계적 상호의존을 갖고 있음을 보이는 증거들은 많이 나왔으나, 남성들이 더 큰 집합적 상호의존을 보이는 결과들은 전통적으로 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다수의 연구들은 진화적 선택으로부터 아동기 소년과 소녀의 사회화 단계에서의 성별 규범에 이르기까지 남녀의 관계적 상호의존과 집합적 상호의존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다(Brewer & Gardner, 1996; Hogg & Abrams, 1988).

위에서 보았듯이 남녀는 자존감의 구성요소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아개념이나 자존감에 대한 연구는 서양의 자료들이 대부분으로서 우리나라 등 동양의 자료와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서양의 자료들도 자존개념의 하위 측면에 따라 상이한 결과들이 제기되는 등 이 분야의 연구들은 아직 탐색적인 단계에 와 있다. 자존감은 이러한 자아개념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문화권별 및 양성 간에 자존감의 구성요소들에서의 차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성인용 척도와 미국 대학생용 척도를 통하여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지, 양성 간에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다음의 두 연구 문제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 보고된 개인주의적 자존감 요소들 대신에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권에서는 집단주의적 자존감의 요소들이 더 중시되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연구문제 2.** 자존감의 구성요인으로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독립성 대 상호의존성, 그리고 상호의존성 중 집합적 상호의존성 대 관계적 상호의존성의 패턴이 우리나라의 남녀 대학생 집단에서도 나오는지 검증할 것이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리커트 형 5점 척도였다. 모두 186문항을 조사에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

주요 분석 방법으로는 전체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구조추출 방식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했고, 직교회전을 실시하였다. 사용 통계 패키지는 SPSS 11.0이었다.

**결과 및 논의**

**연구 1**

**연구목적 및 대상자**

연구 1은 문화심리학적 측면에서 한국인과 미국인의 자존감의 주요 구성요인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차이가 발생한다면 어떤 요인이 주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국인 남녀의 자존감의 차이 유무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상호의존성의 하위 차원에서 차이가 드러난다고 한 만큼,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는 대학생 290명이었다.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미국에서 개발된 다차원 자존감 질문지(MSEI: *The multi dimensional self-esteem inventory*, O'Brien & Epstein, 1988)와 한국형 자존감 척도(차경호 등, 2006)가 사용되었다. 미국의 다차원 자존감 질문지는 총 1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형 자존감 척도는 총 70

한국 대학생 자료에서 고유근이 1.9이상이고 전체 설명량이 43.76%에 해당하는 변인들을 대상으로 요인부하량이 0.4 이상인 문항만을 선별하여 각 요인별 최소 4개 문항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MSEI의 한국 대학생 자료에서 이 기준을 만족하는 요인들은 총 9개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요인은 자신의 능력, 타인에 대한 영향력, 리더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능력’이라 명명하였다. 제 2 요인은 왕따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건강 상태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이라 명명하였다. 제 3 요인은 자신감, 일에 대한 어려움, 지능 수준 등을 반영하는 요인으로 ‘자신감’이라 명명하였다. 제 4 요인은 인생의 목표, 장기적 계획, 진정으로 원하는 것 등을 반영하는 ‘미래상’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제 5 요인은 외모, 신체 매력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외모(얼굴)’라고 명명하였다. 제 6 요인은 자기 절제, 의지, 통제 등의 요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지’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제 7 요인은 도덕적 가치, 도덕적 기준, 거짓말 등을 반영

하는 것으로 ‘도덕성’이라 명명하였다. 제 8 요인은 몸에 대한 자신감, 몸의 상태, 몸매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신체(몸)’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제 9 요인은 사랑스러운 감정, 사랑의 관계, 인기, 좋아함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호감’이라 명명하였다.

미국인의 MSEI 자존감 척도 요인분석 결과에서 표 1과 같이 한국인 대학생 자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총 11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제 1 요인은 외모의 호감, 매력 등 ‘외모’ 요인, 제 2 요인은 신체활동, 운동, 몸의 상태 등 ‘신체기능’ 요인, 제 3 요인은 지도, 주장, 영향력 등 ‘사적 권력’ 요인, 제 4 요인은 죄의식, 도덕적 기준, 도덕적 가치 등 ‘도덕적 자기인정’ 요인, 제 5 요인은 삶의 계획, 목표, 미래에 대한 만족 등 ‘정체성 통합’ 요인, 제 6 요인은 능력, 지능, 수행 등 ‘유능성’ 요인, 제 7 요인은 복수, 비난, 성가심, 책임회피 등 ‘방어적 자기향상’ 요인, 제 8 요인은 낙심, 부정적 평가, 자존심, 방황 등 ‘전체 자존감’ 요인, 제 9 요인은 절제와 의지, 통제, 금지 등 ‘자기통제’ 요인, 제 10 요인은 가족이나 타인과의 사랑과 관련된 것으로 ‘애정’(lovability) 요인, 끝으로 제 11 요인은 호감, 인기, 대인관계 등 ‘호감’(likability) 요인이었다.

한국과 미국 자료를 비교해 보았을 때, 몇 가지 차이가 드러났다. 첫째로, 요인의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능력 요인, 타인의 인정 요인, 자신감 등이 우선 순위를 차지한 반면, 미국의 경우 외모, 신체기능, 사적 권력 요인 등이 우선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인들의 자존심의 구조가 다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둘째로, 일부 요인은 공통적이고, 일부 요인은 그렇지 않다. 공통적 요인은 외모, 도덕성, 유능

성(능력), 자기통제(의지) 및 호감 요인이다. 이 요인들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구성 항목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외모 요인의 경우 한국 자료에서는 5개의 문항이 같이 묶이는데 비하여, 미국자료에서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 공통 요인들도 미국 자료와 구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다른 요인으로는 타인으로부터 한국자료에서는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자신감 및 미래상 요인이고, 미국 자료에서는 신체기능, 사적 권력, 정체성 통합, 방어적 자기향상, 일반 자존감 및 애정 요인이다. 한국 자료와 미국 자료의 차이는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한국 자료의 경우 타인으로부터의 자기 인정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 미국 자료에서는 사적 권력이나 자기 향상 요인에 가치를 두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 특성을 보이고,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전체 요인 개수에서 한국과 미국이 차이가 났다. 두 자료 모두 요인 부하량 0.40과 최소 4개 이상 문항을 기준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9개 요인으로 묶이고, 미국은 11개 요인으로 묶였다. 이것은 자존감 구성요인에 대한 다양성 정도를 나타낸 것이거나 아니면 자존감 구성요인에 대한 질적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인다. 만약 다양성을 나타낸 것이라면, 유사한 요인이지만 서로 구분되는 요인의 수가 많아야 할 것이고, 질적 차이라면 요인의 성질이 서로 달라야 할 것이다. 미국 자료와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였음에도 결과가 다르게 나온 점으로 보아 현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자존감 구성요인에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동일한 문항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가 거의 일치해야 할 것이다. 현 자료만



표 1. 한국 대학생의 자존감 척도 요인분석 결과

문 항		부하량
요인 1: 능력		
75.	집단 안에서 토의 중 당신의 생각이 남들에게 얼마나 강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663
49.	나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풍부하다고 생각한다.	.654
115.	당신은 남들의 의견이나 태도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581
98.	당신은 남들을 지도하는데 즐거움을 느끼십니까?	.562
62.	상당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신이 수행을 잘하리라고 기대합니까?	.556
86.	당신은 무슨 일이든 하고자 하면 잘할 수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554
50.	나는 새로운 일을 재빨리 터득할 수 있다.	.500
23.	나는 대개 남을 지도하기보다는 남의 뒤를 따르는게 더 편하다.	.464
114.	당신은 새로운 일을 할 때 자신 있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448
87.	남들이 당신을 이용하려는 상황에서 당신은 단호하게 자기주장을 펴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447
24.	나를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아주 재주 있고 능력있는 사람으로 여긴다.	.438
83.	당신은 당신보다 어린 사람들의 좋은 도덕적 본보기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435
11.	나는 늘 평가를 받게 되면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424
63.	남들과 토론이나 시비가 있을 때 당신이 지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423
37.	어느 분야이건 내가 정말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분야는 없다.	-.422
6.	나는 남들에게 호감을 주고 인기가 있다.	.406
요인 2: 타인으로부터 인정		부하량
19.	나는 친구들이 나를 왕따 시켜 실망하거나 낙담한 때가 종종 있다.	.600
43.	내가 가족들로부터 등돌림을 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었다.	.567
90.	당신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타인들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549
55.	나는 가끔 아무도 나를 있는 그대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인정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	.532
52.	나는 때로 잘못된 길로 가서 죄를 짓거나 부도덕한 삶을 살 것 같은 생각을 한다.	.531
53.	나는 때로 남들이 내 외모를 보고 나를 피한다는 생각을 한다.	.528
100.	당신은 외톨이거나 남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적이 있습니까?	.474
40.	나는 종종 나의 성행동에 대해서 죄의식을 자주 느낀다.	-.443
39.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보다 건강상태가 더 좋다.	-.438
66.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난 경우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414

요인 3: 자신감		부하량
74.	당신은 새로운 일을 배움에 있어서 얼마나 자주 어려움을 겪습니까?	.646
107.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지 못하다고 얼마나 느끼십니까?	.628
97.	당신은 어떤 흥미있는 직업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지능이 부족하다고 얼마나 느끼십니까?	.622
81.	당신은 외모가 좀 더 매력적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얼마나 합니까?	.521
85.	당신은 자신의 앞으로의 경력발전에 대해 갈등이나 불확실성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510
76.	남을 험담한 적이 있습니까?	.481
84.	당신은 신체적 활동을 할 때 부자연스러움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450
96.	당신의 몸이 나른하거나 나쁜 컨디션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443
113.	당신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429
68.	당신 자신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까?	.416
64.	당신은 완전히 진실이 아닌 일이나 과장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407
요인 4: 미래상		부하량
12.	나는 앞으로 5년 안에 내 인생이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	.611
22.	대체로 나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지 알고 있다.	.598
25.	나는 종종 장기적인 계획이나 목표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514
9.	나는 종종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매사를 결심하는데 애를 먹는다.	.473
17.	나는 때로 내가 친밀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의심할 때가 있다.	.426
16.	나는 가끔 내 자신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한다.	.412
요인 5: 외모(얼굴)		부하량
93.	당신의 외모에 대한 칭찬을 얼마나 듣습니까?	.716
41.	나는 늘 나 자신이 대부분의 남들 보다 더 나은 외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670
69.	당신의 외모 때문에 남들이 끌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669
2.	나는 거의 늘 신체적 매력이 있다고 느낀다.	.581
61.	나는 대체로 나의 외모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	.581
요인 6: 의지		부하량
91.	당신은 남들보다 음식이나 술을 더 잘 통제한다고 얼마나 느끼십니까?	.633
102.	당신은 당신이 아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얼마나 느끼십니까?	.625
79.	당신은 자신의 절제와 의지에 대해 얼마나 만족 해 합니까?	.531
34.	나는 때로 나의 자기통제감이 적은 것을 걱정한다.	-.437
106.	당신은 당신의 도덕적 기준에 맞춰 사는 것에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429
95.	당신은 자신의 도덕적 가치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16
14.	나는 늘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품위 있고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	.398

요인 7: 도덕성		부하량
60.	나는 나의 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종종 한다.	.485
18.	나는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다.	.477
33.	내가 누군가를 심하게 싫어할 때가 있다.	-.469
1.	나는 종종 나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삶을 산다.	.462
46.	나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때가 있었다.	.446
5.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421
31.	나는 내가 부당하게 벌을 받은 예는 없다.	-.402
요인 8: 신체(몸)		부하량
26.	나는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에 비해서 몸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	-.567
70.	신체 활동을 할 때 당신의 몸의 상태에 만족하고 활력적인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553
104.	당신은 자신의 벗은 몸매가 매력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473
54.	나는 늘 자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400
요인 9: 호감		부하량
89.	당신은 남들에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감정을 잘 나타낼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523
32.	나의 친구들은 무슨 계획을 짤 때 반드시 나를 포함 시킨다.	-.518
65.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또는 가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442
111.	당신이 속한 집단의 사람들 중에 당신이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느끼십니까?	.422
110.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한다고 기꺼이 당신에게 알리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420
요인 10: 의연함		부하량
56.	나는 남을 비난하고 싶은 경우가 거의 없다.	.438
88.	당신은 누군가 당신에게 부탁을 하는 때 성가심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423
10.	나는 남들로부터 쉽게 위협 당하지 않는다.	.402
요인 11: 의지력		부하량
47.	어려운 과제를 할 때 나는 종종 유혹에 굴복해 그 일을 그만 둔다.	.579
요인 12: 통제력		부하량
35.	나는 일단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최종 결정을 내는 데는 힘이 안든다	.531
59.	내가 힘들면 자기 통제감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457
20.	나는 남들이 내게 한 것만큼 복수했다고 느낄 때가 많다.	.430

표 2. 미국 대학생의 자존감 척도 요인분석 결과

문 항		부하량
요인 1: 외모		
69.	당신의 외모 때문에 남들이 끌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69
2.	나는 거의 늘 신체적 매력이 있다고 느낀다.	.68
15.	나는 나의 성적 매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다.	.68
61.	나는 대체로 나의 외모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	.65
41.	나는 늘 나 자신이 대부분의 남들 보다 더 나은 외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64
93.	당신의 외모에 대한 칭찬을 얼마나 듣습니까?	.62
53.	나는 때로 남들이 내 외모를 보고 나를 피한다는 생각을 한다.	.58
81.	당신은 외모가 좀 더 매력적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얼마나 합니까?	.55
28.	나는 때로 나의 외모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었다.	.52
101.	당신이 누군가와 처음 만나서 그로부터 호감을 얻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49
104.	당신은 자신의 벗은 몸매가 매력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48
54.	나는 늘 자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46
97.	당신은 어떤 흥미있는 직업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지능이 부족하다고 얼마나 느끼십니까?	.45
45.	나는 데이트 신청 시 거절당할까 두려워 피할 때가 때때로 있다.	.43
78.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하여 호감을 갖을 것이라고 얼마나 확신 하십니까?	.42
요인 2: 신체 기능		부하량
82.	운동이나 춤과 같은 신체적 활동을 할 때 당신의 몸이 그 활동을 아주 탁월하게 해낼 때가 있습니까?	.77
94.	당신은 신체적으로 최상의 컨디션 일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72
84.	당신은 신체적 활동을 할 때 부자연스러움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72
72.	당신은 신체적 활동을 하는 중에 어색하다고 느낀 적이 자주 있습니까?	.71
26.	나는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에 비해서 몸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	.70
70.	신체 활동을 할 때 당신의 몸의 상태에 만족하고 활력적인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69
39.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보다 건강상태가 더 좋다.	.68
105.	당신은 남들 앞에서 춤이나 운동 같은 신체활동을 보여주는 것을 얼마나 즐기십니까?	.63
13.	나는 항상 내 몸이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다.	.62
96.	당신의 몸이 나른하거나 나쁜 컨디션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43

요인 3: 자신감		부하량
23.	나는 대개 남을 지도하기보다는 남의 뒤를 따르는 게 더 편하다.	.75
49.	나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풍부하다고 생각한다.	.70
98.	당신은 남들을 지도하는데 즐거움을 느끼십니까?	.70
108.	당신이 남들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70
36.	나는 내 주장을 내세우는데 어려움이 없다.	.61
87.	남들이 당신을 이용하려는 상황에서 당신은 단호하게 자기주장을 펴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56
75..	집단 안에서 토의 중 당신의 생각이 남들에게 얼마나 강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55
115.	당신은 남들의 의견이나 태도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53
10.	나는 남들로부터 쉽게 위협 당하지 않는다.	.52
63.	남들과 토론이나 시비가 있을 때 당신이 지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42
요인 4: 미래상		부하량
40.	나는 종종 나의 성행동에 대해서 죄의식을 자주 느낀다.	.73
71.	당신의 도덕적 가치에 대하여 불확실해 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71
106.	당신은 당신의 도덕적 기준에 맞춰 사는 것에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71
27.	나는 늘 나의 성행동에서 양심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	.69
95.	당신은 자신의 도덕적 가치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69
60.	나는 나의 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종종 한다.	.63
52.	나는 때로 잘못된 길로 가서 죄를 짓거나 부도덕한 삶을 살 것 같은 생각을 한다.	.61
1.	나는 종종 나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삶을 산다.	.58
14.	나는 늘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품위 있고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	.49
83.	당신은 당신보다 어린 사람들의 좋은 도덕적 본보기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43
요인 5: 정체성 통합		부하량
73	당신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확신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75
25.	나는 종종 장기적인 계획이나 목표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72
22.	대체로 나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지 알고 있다.	.69
85.	당신은 자신의 앞으로의 경력발전에 대해 갈등이나 불확실성을 얼마나 느낍니까?	.68
103.	당신은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아주 만족스러운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66
12.	나는 앞으로 5년 안에 내 인생이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	.64
42.	전반적으로 나는 인생의 현 단계에서 내가 남들보다 성공했다고 평가 하곤 한다.	.45

요인 6: 유능성.		부하량
50.	나는 새로운 일을 재빨리 터득할 수 있다.	.72
74.	당신은 새로운 일을 배움에 있어서 얼마나 자주 어려움을 겪습니까?	.72
97.	당신은 어떤 흥미있는 직업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지능이 부족하다고 얼마나 느끼십니까?	.70
107.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지 못하다고 얼마나 느끼십니까?	.66
62.	상당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신이 수행을 잘하리라고 기대합니까?	.57
114.	당신은 새로운 일을 할 때 자신 있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50
86.	당신은 무슨 일이든 하고자 하면 잘할 수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47
11.	나는 늘 평가를 받게 되면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46
24.	나를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아주 재주 있고 능력있는 사람으로 여긴다.	.44
37.	어느 분야이건 내가 정말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분야는 없다.	.44
요인 7: 방어적 자기향상		부하량
20.	나는 남들이 내게 한 것만큼 복수했다고 느낄 때가 있다.	.71
46.	나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때가 있었다.	.64
33.	내가 누군가를 심하게 싫어할 때가 있다.	.63
58.	내가 남을 이용한 경우가 있다.	.63
56.	나는 남을 비난 하고 싶은 경우가 거의 없다.	.58
18.	나는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다.	.49
99.	당신은 남들의 행운을 부러워 한 적이 있습니까?	.45
88.	당신은 누군가 당신에게 부탁을 하는 때 성가심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44
7.	때때로 나는 못마땅한 책임을 피하려고 노력해 왔다.	.42
5.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41
64.	당신은 완전히 진실이 아닌 일이나 과장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41
요인 8: 일반 자존감		부하량
29.	나는 너무 자주 낙심하는 편이다.	.56
68.	당신 자신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까?	.48
16.	나는 가끔 내 자신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한다.	.47
51.	나는 종종 잘못된 길로 가서 방황한 때가 있다.	.47
113.	당신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45
48.	내 성격의 다른 측면들로 인해 갈등을 겪은 일은 좀처럼 없다.	.43

요인 9: 자기 통제	부하량
79. 당신은 자신의 절제와 의지에 대해 얼마나 만족 해 합니까?	.70
21. 나는 자기수양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본다.	.65
102. 당신은 당신이 아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얼마나 느끼십니까?	.61
47. 어려운 과제를 할 때 나는 종종 유혹에 굴복해 그 일을 그만둔다.	.60
112. 당신은 하던 일을 완결하기 위해 방해나 유혹을 얼마나 물리칠 수 있습니까?	.60
91. 당신은 남들보다 음식이나 술을 더 잘 통제한다고 얼마나 느끼십니까?	.53
34. 나는 때로 나의 자기통제감이 적은 것을 걱정한다.	.52
67. 당신은 끝까지 일을 마무리 한 것에 긍지를 가진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49
8. 나는 종종 앞으로 식사나 음주습관을 통제하기가 힘들까봐 걱정한다.	.41
요인 10: 애정(lovability)	부하량
77.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66
4. 나는 남들에게 얼마나 그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지를 알리는데 힘이 든다.	.60
89. 당신은 남들에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감정을 잘 나타낼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60
30. 내가 어려울 때 나는 늘 가족에 의지 할 수 있다.	.55
110.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한다고 기꺼이 당신에게 알리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52
43. 내가 가족들로부터 등돌림을 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었다.	.46
17. 나는 때로 내가 친밀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의심할 때가 있다.	.43
55. 나는 가끔 아무도 나를 있는 그대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인정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	.41
100. 당신은 외톨이거나 남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41
요인 11: 호감(likeability)	부하량
6. 나는 남들에게 호감을 주고 인기가 있다.	.55
57. 남들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늘 즐긴다.	.52
32. 나의 친구들은 무슨 계획을 짤 때 반드시 나를 포함 시킨다.	.51
111. 당신이 속한 집단의 사람들 중에 당신이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느끼십니까?	.49

만을 가지고는 한국과 미국이 자존감의 다양성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넷째로, 유사한 요인으로 명명된 경우에 개별문항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에서 유사한 요인에 해당하는 한국인의 6번째 요인인 '의지'의 구성 항목은 '91. 당신은 남들보다 음식이나 술을 더 잘 통제한다고 얼마나 느끼십니까?' '102. 당신은 당신이 아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얼마나 느끼십니까?' '79. 당신은 자신의 절제와 의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해 합니까?' '34. 나는 때로 나의 자기통제감이 적은 것을 걱정한다.' '106. 당신은 당신의 도덕적 기준에 맞춰 사는 것에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95. 당신은 자신의 도덕적 가치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4. 나는 늘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품위 있고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 등이다. 미국의 '자기통제' 요인의 경우에 79, 21, 102, 47, 112, 91, 34, 67

및 8번 항목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106, 95, 67, 112 및 47번 문항은 공통이 아니다. 95번과 106번 항목의 경우에 '도덕'이라는 용어가 본문에 포함된 관계로 미국의 경우 '도덕적 자기인정'요인에 속하는 것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유사한 요인이라 할지라도 구성요소가 상당히 다른 것은 문화적 차이를 보여준 것이라 할수 있다(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자존감 구성요인 비교는 표 3 참조).

앞의 결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인과 미국인의 자존감 구성요인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문화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한국인 성인의 자존감 척도와 MSEI를 비교해 보면, 한국인의 경우 자존감의 주요 구성요인 가운데는 부모에 의한 인정, 국가자부심, 사회로부터의 인정과 같은 집단주의적 또는 관계적 요인이 포함되는 데에 비하여 MSEI에는 이런 요인들이 없다. 이것이 미국인들에 비하여 한국인들이 더욱 집단주의

표 3. 한국과 미국대학생들의 자존감 구성요인 비교

한 국	미 국
1. 능력 : C	1. 외모 : C
2.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 K	2. 신체기능 : A
3. 자신감 : K	3. 사회적권력 : A
4. 미래상 : K	4. 도덕적 자기인정 : C
5. 외모(얼굴) :C	5. 정체성 통합 : A
6. 의지 : C	6. 유능성 : C
7. 도덕성 : C	7.방어적 자기향상 : A
8. 신체(몸)	8. 일반자존감 : A
9. 호감 : C	9. 자기통제 : C
	10. 애정 : A
	11. 호감 : C

C : 공통요인 K :한국 고유요인 A : 미국고유요인



표 4. 한국 대학생의 요인 상관분석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요인1	1	.249	.354	.449	.330	.373	.054	.324	.260
요인2	.249	1	.460	.347	.125	.146	.210	.320	.206
요인3	.354	.460	1	.535	.239	.185	.125	.413	.132
요인4	.449	.347	.535	1	.166	.199	.036	.318	.237
요인5	.330	.125	.239	.166	1	.114	-.089	.217	.177
요인6	.373	.146	.185	.199	.114	1	.242	.224	.235
요인7	.054	.210	.125	.036	-.089	.242	1	.145	.067
요인8	.324	.320	.413	.318	.217	.224	.145	1	.168
요인9	.260	.206	.132	.237	.177	.235	.067	.168	1

적 경향을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성인용 한국인 자존감 척도를 대학생들에게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보았을 때, 성인 척도의 요인구조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인부하량이 0.40 이상이고 최소 4개 이상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들을 정리한 것이 표 4에 나타나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한국인 성인용 척도는 대학생에게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어서 외적 타당도가 높은 척도임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구분되는 요인은 성인용 척도에서 요인 1이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이었으나 대학생 자료에서는 이 요인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타인에 의한 인정과 자신의 인정 요인으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MSEI 척도에 의한 한국인 대학생 남녀 자존감 구성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존감 구성요인에 남녀별 차이가 드러났다. 요인 부하량이 0.40 이상이고 각 요인별 최소 4문항 이상에 대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남성들의 경

우 방어적 자기향상이 제 1요인으로 선정된 반면, 여성은 자기 권력과 능력과 관련된 요인이 제 1요인으로 선정되었다. 남성은 사적 권력, 친교, 정체성 통합과 관련된 요인들이 비교적 잘 구분된 반면 여성은 신체기능, 방어적 자기향상, 사적권력, 정체성 통합, 사랑과 관련된 요인들이 비교적 잘 구분되었다. 표 6, 7에서 볼 수 있듯이, 남녀 간 요인 구분에서 다소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렇지만, MSEI 척도에서 선정된 요인과는 상당히 차이가 났으며, 미국척도에서처럼 요인 간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다. 즉, 절반 이하의 몇 가지 요인에서만 미국척도와 유사하였다고 나머지는 달랐다. 이것이 문화적 차이를 나타낸 것인지 남녀 차이를 드러낸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만약 남녀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면 그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 MSEI 척도의 결과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한국인과 미국인들의 자존감

표 5. 한국 성인용 자존감 척도의 대학생들 집단 타당도 분석

요인	문항 번호	요인부하량
1. 애인의 인정	35, 36, 37, 38, 39, 40, 34	0.40 이상
2. 타인의 인기	41, 42, 43, 44, 45, 48, 47, 46	0.40 이상
3. 사회의 인정	29, 30, 27, 31, 26, 28, 33, 32	0.40 이상
4. 경제력	64, 63, 60, 61, 65, 66	0.40 이상
5. 자신의 성취	57, 56, 55, 59, 58	0.40 이상
6. 자신의 인정	7, 8, 50, 51, 5	0.40 이상
7. 타인의 인정	12, 10, 11, 2, 13	0.40 이상
8. 국가 자부심	20, 22, 23, 24, 21, 25	0.40 이상
9. 사회봉사	68, 67, 69, 70	0.40 이상
10. 신체매력	49, 52, 54, 53	0.40 이상
11. 부모 인정	16, 15, 18, 19, 17	0.40 이상

구성요인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기존의 한국인 성인용 자존감 척도의 결과가 대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한국인들의 고유한 자존감 구성요소가 11개 요인으로 묶인다는 점을 확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국 대

표 6. 한국 대학생 남성의 자존감 요인

요인	문항
요인1: 방어적 자기향상	7(DEF*), 76(DEF), 16(G), 99(DEF), 85(ID), 58(DEF), 47(SC), 74(C), 81(BA), 33(DEF), 29(G), 68(G), 64(DEF), 46(DEF), 113(G), 97(C)84 15(BA), 107(C)
요인2: 애정	52(M), 77(LV), 71(M), 8(SC), 90(LK), 19(LK), 100(LV), 53(BA), 28(BA), 96(BF), 55(LV), 20(DEF), 105(BF), 39(BF), 72(BF)
요인3: 신체외모	93(BA), 69(BA), 2(BA), 61(BA), 41(BA), 78(LK), 24(C), 56(DEF), 6(LK), 57(LK), 54(G)
요인4: 신체기능	70(BF), 26(BF), 104(BA), 82(BF), 115(C)
요인5: 능력	87(P), 116(DEF), 35(ID), 95(M), 114(C), 36(P)
요인6: 사적 권력	98(P), 63(P), 23(P), 49(P), 11(C), 80(G), 10(P)
요인7: 정체성 통합	25(ID), 37(C), 73(ID), 101(LK), 9(ID), 22(ID), 51(ID)
요인8: 자아인정	83(M), 66(LK), 34(SC), 48(ID)
요인9: 사랑	89(LV), 65(LV), 110(LV), 4(LV)

\* 문자 표시는 다음과 같다. G=일반 자존감, C=유능성, LV=사랑, LK=친교, SC=자기 통제, P=사적 권력, M=도덕적 자기인정, BA=신체 외모, BF=신체 기능, DEF=방어적 자기향상, ID=정체성 통합.

표 7. 한국 대학생 여성의 자존감 요인

요인	문항
요인1: 능력	115(P*), 75(P), 49(P), 36(P), 98(P), 108(P), 23(P), 86(C), 24(C), 63(P), 50(C), 87(P), 114(C), 6(LK), 62(C), 111(LK), 9(ID), 22(ID), 78(LK), 74(C), 35(ID)
요인2: 신체 외모	84(BF), 70(BF), 72(BF), 94(BF), 82(BF), 13(BF), 96(BF), 113(G), 29(G)
요인3: 도덕성	52(M), 66(LK), 51(ID), 40(M), 38(ID)
요인4: 정체성 통합	21(SC), 25(ID), 44(DEF), 85(ID), 59(SC), 12(ID), 42(G), 81(BA)
요인5: 방어적 자기향상	76(DEF), 64(DEF), 56(DEF), 33(DEF), 66(LK), 46(DEF), 90(LK)
요인6: 신체	41(BA), 93(BA), 61(BA), 2(BA), 69(BA), 28(BA)
요인7: 자기통제	47(SC), 112(SC), 71(M), 73(ID), 67(SC)
요인8: 유능성	91(SC), 92(G), 102(SC), 14(M)
요인9: 대인관계	97(C), 31(DEF), 107(C), 57(LK), 110(LV)
친교 요인	77(LV), 101(LK), 27(M), 88(DEF), 109(DEF)

\* 문자 표시는 다음과 같다. G=일반 자존감, C=유능성, LV=사랑, LK=친교, SC=자기 통제, P=사적 권력, M=도덕적 자기인정, BA=신체 외모, BF=신체 기능, DEF=방어적 자기향상, ID=정체성 통합

학생을 대상으로 한 MSEI 척도 자료에서 남녀의 자존감 구성 요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자료만을 가지고는 남녀 자존감의 구성요인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를 알 수 없다. 이 결과와 앞에서 기술한 남녀별 자존감의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 2는 바로 이 점을 밝히고자 실시되었다. 즉, 남녀 자존감의 구성요인의 차이 또는 동일한 구성요인일지라도 세부 문항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연구 2

### 연구목적 및 대상자

남녀간의 자존감의 차이가 어떤 하위 요인

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밝히려고 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는 대학생 51명이었으며 이 중 남성은 34명(56%) 여성은 27명(44%)이었다. 부가 학점을 주는 조건으로 실험에 임하였으며, 각 조건에 무선 배정되었다.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남성은 21.08세였고, 여성은 19.15세였다. 자료 조사 시기는 2007년 5월이었다.

### 조사도구 및 분석 방법

사용된 척도는 Singelis(1994)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 척도 및 Cross, Bacon, 및 Morris(1999)의 집합적 상호의존 척도였다. Singelis의 척도에서 상호의존성 문항은 “나는 집단에서 내린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성 문항은 “나는 수업 중 내 주장을 펴는데 어려움이 없다” 등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Singelis의 원래 논문에서 보고한 신뢰도 계수 크론바하  $\alpha$ 는 상호의존성 척도에서는 0.73, 독립성 척도에서는 0.69였다. Cross 등의 척도는 “내가 속한 집단을 통하여 나의 중요한 부분이 잘 나타난다”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변인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용 통계 패키지는 SPSS 11.0이었다.

결과 및 논의

각 척도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녀별로 상호의존성 차원과 독립성 차원을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유의미한 주효과가 검출되었다,  $F(1,49)=3.487, p=.039$ . 표 8에서 보듯이, 상호의존성 차원에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 $p=.713$ ), 집합성 차원에서도 남녀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p=.510$ ) 독립성 차원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p=.020$ ).

상호의존성 차원에서 남녀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문항별 남녀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해 본 결과, 집합적 상호의존성 차원에서는 10개 문항 모두에서  $p=0.5$  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문항은 없었으며, Singelis의 상호의존성 척도의 각 문항에서도 1개 문항에서만  $p=.027$ 로 차이가 나타날 뿐이었다. Singelis의 독립성 문항에 남녀별로  $p=0.05$  수준으로 특히 크게 차이가 난 문항은 각각 다음과 같다. 즉, ‘나는 오해를 하게 하기보다는 대 놓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편이다’, ‘나는 수업 중 내 주장을 펴는데 어려움이 없다’, ‘내 자신을 돌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및 ‘나는 처음 만난 사람들과 솔직하고 직선적으로 대한다’ 등이었다. 이 문항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신념이나 의견을 명확히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 문항들에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자기 주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대학생의 경우 남녀

표 8. 남녀별 척도별 자존감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상호의존성*	남	58.44	7.62
	여	57.78	6.05
	전체	58.15	6.92
독립성*	남	57.50	7.48
	여	51.19	7.34
	전체	54.70	8.01
집합적 상호의존성#	남	46.65	9.10
	여	45.30	6.05
	전체	46.05	7.86

\* Singelis(1994)의 척도로서 상호의존성과 독립성을 재는 12개 문항으로 7점 척도

# Cross, Bacon, & Morris(1999)의 집합적 상호의존성 척도는 10개 문항으로 7점 척도

에 관계없이 상호의존성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독립성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논리적으로 고려해보면, 독립성의 차원에서 남녀별로 차이가 나타나면, 그 반대 개념인 상호의존성 차원에서도 남녀 차이가 존재해야 함에도 본 연구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두 차원이 서로 별개의 차원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가 한국인 남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미국인들에게도 적용되는지를 본 연구로는 알 수 없다. 기존의 연구에서 서양인에 비하여 동양인들이 상호의존적이라고 하지만(Triandis, 1989; Markus & Kitayama, 1991) 남녀의 차이에 있어서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치 않았다. 본 연구는 동서양의 차이가 남녀에 대하여 서로 다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독립성 차원에서만 차이가 발생하고 상호의존성 차원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집단주의 문화특성을 나타낸 것이라면, 미국인 등 개인주의 문화특성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제작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번안 척도에서 Singelis의 상호의존성 문항의 신뢰도 계수 크론바하  $\alpha$ 는 0.488에 불과했고, Singelis의 독립성 문항의 크론바하  $\alpha$ 는 0.631이었고, 끝으로 Cross 등의 집단적 상호의존성 문항의 크론바하  $\alpha$ 는 0.765였다.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신뢰도 수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연구의 결과 해석에 다소 한계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물론 본 연구가 척도의 신뢰도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나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

Singelis 상호의존성 문항에서 ‘나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다(I respect people who are modest about themselves)’와 같은 문항 우리나라 상황에서 볼 때 과연 상호의존성과 얼마나 관계가 깊은지 다소 의심스럽다. 문항의 애매성은 아마 문항의 의미가 지니는 문화차 때문에 발생한다고 추정된다. 독립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문항이 더욱 적절한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종합 논의

연구의 1의 결과를 요약하면, MSEI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았을 때 한국인과 미국인의 자존감 구성요인에서 차이가 존재하였다. 공통된 요인의 개수가 더 많기는 하였지만 구성 문항에서 차이가 발생하였고, 일부 요인들은 요인 내용 자체가 서로 달랐다. 이 결과는 한국인과 미국인들의 자존감에 어떤 질적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MSEI 자료에서 한국인 남녀의 자존감 구성요인이 차이가 났다. 기존의 한국인 성인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여 대학생들의 자존감 구성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성인의 자료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일부 문항에서는 소폭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동일한 자존감 구조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특히 기존 척도의 외적 타당도를 입증한 점에 특히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연구 2에서는 한국인 남녀 자존감 구성요인의 질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독립성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였지만, 상호의존성이든 집합적 의존성이든 의존성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성이 더욱

독립적이었지만 의존성 측면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소속욕구를 중심으로 한 상호의존성에 대한 욕구에 있어서는 양성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으리라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한 것이다(Gardner, Pickett, & Brewer, 2000; Misty, Rosansky, McGuire, McDermott, & Jarvik, 2001)). 개별 문항 분석에서 지나치게 당당할 정도로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 남녀 차이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상호의존의 두 하위 영역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문화적 차이인지 번안된 문항의 부적절성 때문인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 1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과 미국인들의 자존감 구성요인이 다르다는 사실이었다. 기존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차이를 보여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국가 자부심과 같은 집단주의 특성이 자존감의 중요한 구성 요인인 것이 미국인과의 문화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단순히 동양과 서양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차이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자존감 구성요인의 측면에서 문화적 차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탐구하려 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는 자존감 구성요인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며 동시에 남녀 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사실은 서양, 특히 미국에서 개발한 다양한 심리 척도들을 그대로 번안하여 최소한의 신뢰도만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동일한 문항이라도 문화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한국인에게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항도 존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가능하면 한국인을 위한 척도는 한국인을 대

상으로 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검사나 척도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는 한국인 성인용 자존감 척도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을 때도 거의 동일한 자존감 구성요인 패턴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이 척도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척도라는 점을 확인한 점이다. 이와 같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된 척도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문화에 고유한 특징을 반영한 훌륭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연구 2에서의 의의는 동서양의 문화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들은 많으나 그 차이가 남녀에게 다르게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점이다. 즉, 전반적 문화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남녀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둔 점이 고무적이다. 보다 폭넓은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자존감 구성요인의 문화차이나 남녀차에 관하여 의의 있는 결과를 알 수 있었으나 몇 가지 연구의 제한점이 존재한다. MSEI 척도의 미국인과 한국인의 차이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한국에서 개발한 성인자존감 척도에 의한 미국자료가 현재로는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문화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를 명확히 결론지을 수는 없다. 연구 2의 상호의존성 및 독립성 차원도 미국인의 자료가 존재해야 보다 분명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인과 한국인의 자존감 구성요인의 차이를 밝혀준 점은 의의가 크겠지만, 미국 자료의 미비로 일반화에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및 한영석 (2006). 한국성인 자존감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1), 105-139.
- Baumeister, R. F., & Sommer, K. L. (1997). What do men want?: Gender differences and two spheres of belongingness: Comment on Cross and Madson (1997). *Psychological Bulletin*, 122, 33-44.
- Breakwell, G. M. (1978). Some effects on marginal social identity. In H. Tajfel (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London: Academic Press.
- Brewer, M. B., & Gardner, W. (1996). Who is this "we"? Level of collective identity and self repres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3-93.
- Cross, S. E., Bacon, P. L., & Morris, M. L. (1999). The relation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791-808.
- Cross, S. E.,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 5-37.
- Gabriel, S., & Gardner, W. L. (1999). Are there "his" and "hers" types of interdependence?: The implications of gender differences in collective versus relational interdependence for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642-655
- Gecas, V., & Burke, P. J. (1995). Self and identity. In K. S. Cook, G. A. Fine, & J. S. House (Eds.)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ocial psychology*(pp. 41-67). Boston: Basic Books.
- Heine, S. J., & Lehman, D. R. (1997).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enhancement. An examination of group-serving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68-1283.
- Hogg, M. A., & Abrams, D. (1988). *Social identifications: A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processes*. London: Routledge.
- Houston, D. M., & Andreopoulou, A. (2003). Tests of both corollaries of social identity theory's self-esteem hypothesis in real group setting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2, 357-370.
- Huajian, C., Jonathan, D. B., Ciping, D., & Mark A. O. (2007). Self-esteem and culture: Difference in cognitive self-evaluations or affective self-regard?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3), 162-170.
- Josephs, R. A., Markus, H.R., & Tafarodi, R. W. (1992). Gender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391-402.
-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it, V. (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self: Self 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45-1267.
- Kitayama, S., Markus, H. R., Snibbe, A. C., & Suzuki, T. (2003). they saw a game. A Japanese and American (football) field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 581-595.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cus, H., & Oyserman, D. (1988). gender and thought: The role of the self-concept. In M. Crawford & M. Hamilton(Eds.), *Gender and thought*(pp.100-127). New York: Springer-Verlag.
- Mistry, R., Rosansky, J., McGuire, J., McDermott, C., & Jarvik, L. (2001). Social isolation predicts re-hospitalization in a group of older American veterans enrolled in the UPBEAT Program,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6, 950-959.
- O'Brien, E. J., & Epstein, S. (1988). *The multidimensional self-esteem inventory*. Odessa, FL: Psychological Association Resources.
- Secley, E. A., Gardner, W. L., Pennington, G., & Gabriel, S. (2003). Circle of friends or members of a group?: Sex-differences in relational and collective attachment to groups. *Group Process and Intergroup Relations*, 6, 251-264.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Journal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20, 580-591.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urner, J. C., & Reynolds, K. J. (2000). The social identity perspective in intergroup relations: Theories, themes, and controversies. In M. A. Hogg & D. Abrams (Eds.), *Intergroup relations: Essential readings*. Hove: psychology Press.
- Williams, J. E., & Best, D. L. (1990). *Measuring sex-stereotypes: A thirty nation study*. Beverly Hills CA: Sage.
- Wood, W., Christen, P. N., Hebel, M., & Rothgerber, H. (1997). Conformity to sex-typed norms, affect, and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23-536.

1 차원고집수 : 2008. 5. 11.

심사통과집수 : 2008. 9. 1.

최종원고집수 : 2008. 9. 25.



## Cultural and gender differences of Korean students' self-esteem

**Kiwon Hong**

Hoseo University

Cultural and gender differences of Korean students were tested in this paper. Korean Self-esteem Scale developed by Cha, Hong, Kim, & Han, 2006) and Multiple Self-esteem Indicator(MSEI) proposed by E. J. B'Brien & S. Epstein(1988) was employed to test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both gender of Korean students in study 1. Nine factors were emerged among Korean students through factor analyses: Ability, acknowledgement, self-confidence, appearance, volition, morality, body, and liking. On the other hand, 11 factors of self-esteem were identified among American students: Appearance, body function, personal power, moral self-approval, identity-integration, ability, defensive self-improvement, general self-esteem, self-control, loveability, likability. Hence, appearances, morality, ability, volition, and likability were common while approval from others of Korean and personal power and defensive self-improvement of American were distinguished between two cultures,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 characteristic patterns of Korean and American as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And there was gender difference between Korean males and females on the factor components, which is a significant validation of this scale. Interdependent and independent aspects of both gender's components of self-esteem were tested in study 2. There was a significant gender gap in the independent dimension of self-esteem, but no difference was showed in the interdependent dimension. Korean male students were far more independent compare d to Korean female students. Also, no gap in collective interdependence and relational interdependence, which are two sub-components of interdependence expected different in both gender, was shown between Korean male and female students. Suggestions and limitations centered on differences in interdependent dimension between both gender were discussed.

*Key words : cultural-gender differences, self-esteem, individualism, collectivism, interdependent dimension, independent dimension, collective interdependence, relational interdependence.*